

# 박순애 교체만으로는 안된다는데...참모진도 바꿀까

### 윤 대통령 인적쇄신 폭 얼마나 될까

### 20%대 지지율에 교체 불가피 판단

### 각종 혼선 박 부총리 사실상 경질

### 민심 공감 얻을 수 있는 큰 폭 가능성

### 교체 폭 최소화 단계 대응 관측도

대통령 취임 후 첫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 및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는데 따라 어느 정도의 강도와 폭으로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여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8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거취 정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박 부총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 조치를 넘어 전반적인 국정 수습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인적 쇄신의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대통령실 참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인적쇄신보다 민생행보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반영하듯,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에게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시면서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다시 한번 분발 촉구하되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휴가 첫날인 지난 1일 브리핑에서도 인적 쇄신에 대해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직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데다,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한 번 기용한 인물은 쉽사리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이다.

그러던 윤 대통령이 사실상의 경질로 선화한 데는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와중에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선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의 첫 교육정책을 놓고 빚어진 혼선으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 5세 취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 와중에 외교 폐지 발표까지 혼선이 일면서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야당에서 연일 사퇴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부총리 경질이 대통령실 참모진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민심을 가장 민감하게 받들고 반응해야 할 곳"이라며 "이왕하는 인적 쇄신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취임 4개월 차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수석 전원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고, 반동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여권 일각에서는 교체 폭은 상징적인 선에서 최소화하고 광복절 경축사, 취임 100일 대국민 메시지, 다양한 민생 정책 등 단계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등 날을 세웠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경찰국 신설 위법” vs “경찰대 개혁 필요”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류삼영 총경 징계 과정 문제 제기도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고 총공세를 펴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정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윤 후보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위법적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총경회의 후)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윤 후보자 측 요청을)걸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늘(경찰의) 한편에서 계신분이 이르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했다.

박상민 의원은 총경회의 당시 류 총경 등이 정복을 입고 참석했다며 “정복을 입고 자리에 참석하고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은 공식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왜 개인적인 업무라고, 사적 자리라며(징계를) 하나”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김용 의원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당 대표의 수사를 촉구한 점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왜 갑자기(경찰국 신설로 중립성이) 무너지 수 있느냐”며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잠으로 의문스럽다”고 직격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불법 공매도 등 다중피해 불법행위 엄단하라”

### 윤 대통령, 금융위원장 업무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

고 합리화해 금융 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과 관련해 지자체와 은행에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윤 대통령이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있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부정평가 첫 70%대

### KSOI... 70.1% “잘 못하고 있다”

### 리얼미터 긍정평가 3.8%P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석 달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잇따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8%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33.1%에서 3.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4.5%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38.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밖이었으며, 부정 평가는 긍정 평가의 배를 웃돌았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 경남에서 31.3%(11.2%p ↓), 서울 30.6%(4.6%p ↓), 대전·세종·충청 29.2%(3.8%p ↓), 인천·경기 26.6%(2.8%p ↓), 대구·경북 43.6%(1.4%p ↑)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41.7%(11.9%p ↓), 60대 39.1%(5.0%p ↓), 40대 18.1%(4.2%p ↓), 50대 27.6%(4.0%p ↓), 30대 26.1%(3.0%p ↓), 20대 26.9%(3.5%p ↑)였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5%, 부정 평가는 70.1%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42.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1.3%, 민주당이 36.8%였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 호감도는 각각 2.5%포인트, 6.7%포인트씩 동반 하락했다.

KSOI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8%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ARS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